

김수영 수필가 영작 수필집 출간

김수영 수필가 · 시인이 쓴 <읽을 수 없는 스코필드 박사와 에델바이스의 추억>이 영어 책으로 Amazon.com 에서 판매합니다.



책 제목 <A Beacon of Hope_ Dr. Frank W. Schofield>

* Kindle \$9.90 * Paper Book \$23.90

신예원 수필가 문집 <이 아침을 어찌 넘기랴> 출판기념회



참으로 오랫동안 꿈을 들였다.

글을 써 놓기는 해도 세상 밖으로 내놓는 일은 정말 쉽지 않다. 더구나 내 이름으로 책을 내는 일이 그렇게 자랑스럽거나 광고 알 일도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고 글을 써서 묵여놓고 쌓아두는 일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했다. 언젠가는 발표할 수도 있으리라 스스로 위로도 했지만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 망설였다. 내 글이 가슴이 뜨거워져 눈물이 흐르거나, 바로 이거야라고 공감한다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할 일인가. -작가의 말 중에서-



재미수필 제24집 출간 (2022년 12월)

외원 43명 작품 수록

자유제 65편

테마 / 추억 만들기 10편

특집 / 디카 수필 9편

제17회 재미수필신인상 수상작 7편

총 312 페이지

구입 연락처: jaemisupil2021@gmail.com

재미수필문학가협회 뉴스레터 제 82호

휴전수필

2023 Summer

재미수필문학가협회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01 엽외장 발간사	이연숙	9월 9일이 기다려진다
02 창립 25주년 가을 문학세미나 안내		
03 주현 시	왕금찬	7월의 노래
04 고전수필	이양아	신록의 예찬
06 외원 시	김영교	물소리
07 외원수필	공순애	봄에서 여름으로
08	정조앤	종이악
09	박진익	남은 것은
10	이익숙	파도타기(Surfing)
12	임선주	스텔스 모기
14	이명숙	그 여름날의 언덕
15	김영국	겉만 거목일 수 없잖아
16	안남옥	구순의 엄마가 주는 행복
18 ‘봄나들이’ 이모저모		
19 유튜브채널 소식 & 외비남부 연왕 (1월~6월)		
20 여름호 행사	온동네방 & 토렌스방	<가쪽 여행>
엽외 소식 및 외원 동경 / 타문인엽외 소식		
신간소개	신예원 수필가 문집 <이 아침을 어찌 넘기랴>	
김수영 수필가 영작 수필집 <A Beacon of Hope_ Dr. Frank W. Schofield>		

✧ 재미수필문학가협회 모임

- 월례회 -

ZOOM MEETING / 대면모임

- 연락처 -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KEAA)

4946 East 6th St., LA, CA 90022

YouTube: 재미수필

Website: jaemisupil.com

Email: jaemisupil2021@gmail.com

- 지역별 모임 안내 -

(작품 압평 · 문법 수업 · 친목 도모 등)

* 벨리방: 이리나 llee439@yahoo.com

* 엘에이방: 이정호 jlee511640@sbcglobal.net

* 토렌스방: 김카니 apoconie@yahoo.com

* 오렌지방: 이익숙 heesookyoo220@gmail.com

* 플러턴방: 조성완 duccube@hanmail.net

* 엘바인방: 한영 hahnyoung29@gmail.com

* 온동네방: 박진익 jinheepgh@gmail.com

9월 9일이 기다려진다



가까이 지내는 주변 사람들이 내게 질문해 온다. 오징어 게임 두 번째 시리즈는 언제 나오는지, 그 안에 나오는 게임은 해 보았는지를. 때 아니게 나는 한국 문화 콘텐츠 대변인이 된 느낌이다. 언제부터인지 한국의 드라마가 한인에게만 귀속된 것이 아닌 글로벌화 되었다. 내 이웃들도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를 얘기할 때는 한인 못지않게 아는 체를 해댄다. 자막을 다 읽지는 못해도 전후 맥락의 흐름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도 미국식 감정 표현을 배울 수가 있어서 일부로라도 자막에 눈길을 주곤 한다.

자막은 번역이다. 번역은 낯선 언어를 낯익은 언어로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직역과 의역이라는 양 갈래의 난제 앞에서 방황하게 된다. 직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장이나 표현을 각기 다름의 문화에 정서적 일치점에 접근하는 일이다.

문학이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없지만, 번역자의 문학적 직관을 통하여 최대치의 접근은 가능한 일이다. 이제 세계가 점점 하나로 좁혀지고 한국 문화 또한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 이때에 맞추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문학의 세계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 K-culture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시점에 한국문학만이 뒷짐을 지고 있을 수는 없다. 주옥같은 한국 문학이 노벨 문학상의 변방에 서 있는 이유는 번역문학의 문제점일 수도 있었다.

재미수필문학가협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번역문학의 대가인 김성곤 교수(서울대 영문과 명예교수.한국문학번역원 원장 역임)를 모시고 9월 9일에 문학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 인터뷰에서 교수님은 “지금까지의 번역이 ‘언어에서 언어로의 번역’이었다면 이제는 ‘문화에서 문화로의 번역’, 즉 문화 번역입니다. 언어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문장이나 표현이 현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라고 했다.

이번 기회에 <한국문학의 번역과 해외출판>에 대한 강의로 번역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영화 속 문화 읽기>로 요즘 핫한 한국 문화 콘텐츠로 관심을 끄는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을 문화와 연결 지은 2부 강의를 있다. 피부색이 다른 주변 친구들에게 작품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설렌다.

우리 문학인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회장 이현숙

창립 25주년 가을 문학세미나 안내

재미수필문학가협회가

어느덧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수필을 아끼는 많은 분과 문단 선우배들의
관심과 배려로 협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리는 기념행사로 김성곤 교수를 모시고
문학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세월의 무게와 앞으로의 희망,
귀한 강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축하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

김성곤 교수

연재 닥터머스 대학 (뉴햄프셔주 애노버시)

강의

1강: 한국문학의 번역과 해외출판

2강: 영화 속 문학읽기

일시: 2023년 9월 9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장소: 가든 스위트호텔 1층 연회실

주소: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외비: 40불 (강의록, 다과 & 점심제공)

연락처: 이연숙 323-440-1051

이메일: jaemisupil2021@gmail.com

7월의 바다

황금찬

아침 바다엔
밤새 물새가 그려 놓고 간
발자국이 바다 이슬에 젖어있다.

나는 그 발자국 소리를 밟으며
싸늘한 소라껍질을 주워
손바닥 위에 놓아본다.

소라의 천년
바다의 꿈이
호수처럼 고독하다.

돛을 달고, 두세 척
만선의 꿈이 떠 있을 바다는
벃머리를 열고 있다.

물을 떠난 배는
문득 나비가 되어
바다 위를 날고 있다.

푸른 잔디밭을 마구 달려
나비를 쫓아간다.
어느새 나는 물새가 되어 있었다.

짧은 글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짧게, 옛지있게, 반전있게)

일이 복잡할수록 그 해결책은 '지우거나, 비우거나, 줄이거나' 이다. 미니멀리즘은 그곳에서 출발한다. 문학이라고 피해가지는 못한다. 디지털문화의 소산이라는 '미니문학' 이 등장하자 소설에서는 미니 픽션, 시에서는 행시(行詩), 수필에서는 단수필의 형태가 나온다. 단수필은 다시 5매·7매 수필이니 손바닥 수필들로 세분화되지만, 결국 짧은 글들이다.

단수필의 경우, 우선 길이가 짧으니 마음에 부담이 좀 적다. 주제 전달이 쉽고, 구성의 묘미를 살릴 수 있으며, 경쾌한 속도로 가독성이 좋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가령 음악곡이 하나 있다고 치자. 이것을 여러 버전으로 편곡하면 정통클래식, 재즈나 보사노바 풍, 앙상블 형태로 나타나듯이, 하나의 작품을 다만 단수필의 형태로 변용' 하는 것뿐이니 까 그 안에서 주제는 변함없이 생생하게 들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개성적인 기법이 필수조건이다. 시적, 소설적, 드라마 시네마 스타일의 온갖 기법을 차용해 입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설명은 기라! 긴 글로... , 단칼에 무의 단면을 쳐내야 한다. 화룡점정의 결정적 붓질과 촌절살인의 한마디의 '반전' 이 필요하다. '반전의 미학' 은 단수필의 정점이자 엑스터시이다.

때로 단수필을 써 보라면 시적 이미지를 살려서 서정만 강조해서 쓰는데, '단수필은 산문' 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산문성은 들어 있어야 한다.

이제 짧은 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 대문으로 들어가 보자.

- 이경은의 글쓰기 강의노트 -



봄 여름 가을 겨울 두루 4시를 두고 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그중에도 그 혜택을 가장 풍성히 아낌없이 내리는 시절은 봄과 여름이요, 그중에도 그 혜택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은 봄, 봄 가운데도 만산에 녹엽(綠葉)이 우거진 이때일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 산을 바라보라.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나날이 푸르러 가는 이 산 저 산, 나날이 새로운 경이를 가져오는 이 언덕 저 언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우리가 비록 빈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록 가난하여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바람은 다음 순간에라도 모든 것을 가져올 듯하지 아니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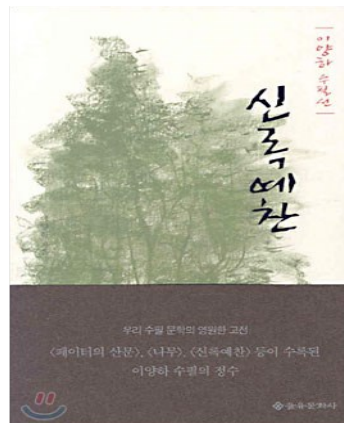
오늘도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우리 연전(延專) 일대를 덮은, 신록은 어제보다도 한층 더 깨끗하고 신선하고 생기있는 듯하다.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법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놓은 듯이 옷을 훨훨 털며 본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래야 솔밭 사이에 있는 겨우 걸터앉을 조그마한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하지만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하여 주고 또 나 자신이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솔잎 사이로 흐느끼는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루 동안에도 가장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의 여유 있을 때마다 나는 한 큰 특권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하염없이 앉아 있기를 좋아 한다.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을 떠나 고고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골(仙骨)이 있다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괴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갑남을녀(甲男乙女)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授受)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에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세속에 얽매여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칠정(五慾七情)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데 마음의 영일(寧日)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卑小)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는 한 잡음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사실 이즈음의 신록에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이상한 힘이 있는 듯하다. 신록을 대하고 앉으면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모든 티끌—나의 모든 욕망과 굴욕과 고통과 곤란—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다음 순간, 별과 바람과 하늘과 풀이 그의 기쁨과 노래를 가지고 나의 빈 머리에, 가슴에, 마음에 고이고이 들어앉는다. 말하자면 나의 흥중에도 신록이요, 나의 안전(眼前)에도 신록이다. 주객일체(主客一體) 물심일여(物心一如), 황홀하다 할까, 현요(眩耀)하다 할까, 무념무상(無念無想) 무장무애(無障無), 이러한 때 나는 모든 것을 잊고 모든 것을 가진 듯이 행복스럽고, 또 이러한 때 나에게는 아무런 감각의 혼란도 없고 심정의 고갈도 없고, 다만 무한한 풍부와 유열(愉悅)과 평화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때에 비로소 나는 모든 오욕(汚辱)과 우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고, 나의 마음의 모든 상극과 갈등을 극복하고 고양하여 조화 있고 질서 있는 세계에까지 높이 들어선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러기에 초록에 한하여 나에게는 청탁(淸濁)이 없다. 가장 연한 초록에서 가장 짙은 초록에 이르



기까지 나는 모든 초록을 사랑한다. 그러나 초록에도 짙으나마 일생이 있다. 봄바람을 타 새움과 어린잎이 돌아나올 때를 신록의 유년이라 하면, 삼복염천 아래 울창한 잎으로 그들을 짓는 때를 그의 장년 내지 노년이라 하겠다. 유년에는 유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장년에는 장년의 아름다움이 있어 취사하고 선택할 여지가 없지 마는, 신록에 있어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역시 이즈음과 같은 그의 청춘 시대—움 가운데 숨어 있던 잎의 하나하나가 모두 형태를 갖추어 완전한 잎이 되는 동시에 처음 태양의 세례를 받아 청신하고 발랄한 담록을 띠는 시절이라 하겠다. 이 시대는 신록에 있어서 불행히 짧다. 어떤 나무에 있어서는 혹 2, 3주일을 셀 수 있으나, 어떤 나무에 있어서는 불과 3, 4일이 되지 못하여 그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이 짧은 동안의 신록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참으로 비할 데가 없다. 초록이 비록 소박하고 겸허한 빛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때의 초록은, 그의 아름다움에 있어 어떤 색채에도 뒤서지 아니할 것이다. 예컨대 이러한 고귀한 순간의 단풍 또는 낙엽송을 보라. 그것이 드물다 하면 이즈음의 도토리, 버들 또는 임간(林間)에 있는 이름 없는 이 풀 저 풀을 보라. 그의 청신한 자색(姿色), 그의 보드라운 감촉, 그리고 그의 그윽하고 아담한 향훈(香薰). 참으로 놀랄 만한 자연의 극치의 하나가 아니며, 또 우리가 충심으로 찬미하고 감사할 만한 자연의 아름다운 혜택의 하나가 아닌가. 🍀

물소리

김영교



힘에 겨워 비틀
숨이 차다
어디서 들리는 물소리

점 하나 따라
귀, 온 몸이

휘감긴 긴장 제치고
숨결이 가는
비틀 그리고 주춤 그 사이

낭떠러지
뛰어 내리며 흘러간다
걱정 우거진 세상에

씻고 마시고
끝난 듯 시작 되는 물길
소리가 길이 되는
수많은 출발이 도착에 간다

물길을 완성한
그 떨림 한 폭
여기
그 물소리



앞마당에 무언가 툭 떨어졌다. 봄이다. 자세히 보니 나무에 움이 트고 있다. 작은 목화송이처럼 몽실몽실 올라오고 있는 생명의 움. 여섯 살 우리 어진이만큼 예쁘다. 더 자세히 보니 연둣빛이 돈다. 속살만큼 예쁜 연두색 움.

그날 누군가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걸 뭐라 생각하세요? 여섯 살 우리 어진이처럼 싹 터 올라오는 나무의 움입니다. 손주를 무척 사랑하시는군요. 생명 가진 것 모두 아름답지 않은 게 없지요. 그중 여린 생명은 더욱 아름답고요. 그 어진이가 올해 열 한 살이다.

올해도 움들은 나른한지 누가 보거나 말거나 기지개 켜며 하품을 한다. 하품하는 놈들을 놀래게 하듯 새 한 마리 그 위로 날아오른다. 척박함 속에서도 올망졸망 자라가는 아이들. 웅기종기 피는 꽃 무리처럼 봄에서 여름으로 자란다. 🍀





어머나, 증손주에게 직접 주고 싶은데 너무 어리구나. 아이가 철이 들 때쯤 내가 만든 이 종이학을 주어라. 시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셨다.

어머니에게 손가락 운동에는 이만한 것이 없다며 종이학 접기 색종이를 사다 드렸었다. 처음에는 반듯하게 접고 각을 세우는 것이 만만

치 않아 힘들어하셨지만, 나중에는 천 마리를 접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만드셨다.

93세가 되신 시어머니는 첫 증손주를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일 년이 지나서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다. 아이가 네 살이 될 무렵 시어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아이는 장례식장에서 관에 안치된 증조할머니를 바라보며 “이제는 뽀뽀해 드릴 수 없어요?”라며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

손주들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유리병에 담긴 종이학을 신기하게 여겼다. 마룻바닥에 쏟아놓고 개수를 세기도 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저들끼리만 아는 놀이에 빠지기도 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때야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는 종이학을 모아 유리병 속에 넣으며 시어머니의 흔적을 더듬어 보았다.

8월 초 아들네가 사는 아이다호 주를 방문하려고 한다. 손주들이 십 대가 되었기에 증조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드신 종이학 선물을 줄 때가 온 것 같다.

얘들아, 증조할머니께서는 살아생전에 이 종이학을 접고 접으시면서 너희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쉬지 않으셨단다. 귀한 것이니 고이 간직하여라. 🍀





죽음이 다가오는 환자를 어느 정도 알아챌 수 있다. 코마상태가 길어지는 경우엔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온몸이 붓거나 피부가 짙은 보라색을 띠기 시작한다. 가족이나 지인조차 찾아오지 않는 의식불명의 환자는 좀 더 빠르게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된 John이란 환자가 있었다. 온몸의 문신이 튀어나와 살아 날뛰며 그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았다. 머리칼이 곤두서고 소름이 돋았다. 큰 키에 근육질 몸매의 30대 백인 남자, 숨은 쉬고 있었지만, 뇌사상태여서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방에서 수액 주사가 끝났다는 기계소리가 시끄럽게 연신 울렸으나 그의 간호사는 번번이 바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내 환자 옆방이라 자주 들여다 보게되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면서 그가 곧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의 간호사가 아니어서 병원에서 봉사하는 신부님이나 종교인을 요청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직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의 방에 들어서자, 사탄을 숭배하는 듯한 문신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갑자기 찾아온 죽음을 앞두고 혹시나 가족이나 연인이 찾아 주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젠 포기했는지 그의 굳게 감긴 눈은 생면부지의 나를 반기는 듯했다. 겨우 얼마

간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뿐인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무슨 상관인가. 오랫동안 노동을 했는지 굳은살이 박인 큰 손의 두툼한 손가락사이로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그의 손을 잡자, 나도 모르게 그를 대신하는 기도가 흘러나왔다. "지난날의 잘못과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불쌍한 저를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날 그의 방은 비어 있었다.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았다. 다른 간호사의 환자차트를 보는 것은 금지사항이다. 확인하고 싶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참았다. 그와 이별은 이미 어제 했으니까...

스쳐 간 수백 명의 환자와 황망해하는 그들의 가족들을 대하는 경우, 위로조차 어렵고 아리다. 남동생이 동성애자로 약 중독으로 깨어나지 못하자 모든 것을 내게 퍼붓고 원망하는 젊은 누나의 표정. 추운 밤에 거리를 나가 헤매다 쓰러져 병원에 오게 된 P 10쪽 ➡



남은 것은 / 박진희

➡ P 9쪽에서 연결

아버지와 딸이 서로 욕설을 퍼붓던 아우성 소리. 남편에게 화가 나서 자신의 오른쪽 귀 위에 권총을 쏘 얼굴이 축구공보다 더 부풀고 왼쪽 눈이 밤송이처럼 튀어나온 중년의 여인,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던 남편의 시선... 그 환자들과 가족들의 삶의 무게가 날 바닥으로 사정없이 짓눌렀다.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온몸이 젖은 솜이불처럼 무거워졌다. 그 병원에서 헤어 나오기까지 거의 9년이 걸렸다.

지나버린 간호사 시절엔 낮아져야 높은 곳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 그저 살아내는 일에 두려움을 떨치기 위한 기도가 절실했다. 그러다 차츰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John의 큰 손을 잡고 기도했을 때 그의 영혼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었을까.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 순간이 가끔 내 옷소매를 잡는다. 이 세상에서 저 세계로 가는 사람에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

파도타기(Surfing) / 이희숙



손자는 어릴 적 파도타기를 좋아했다. 몰려오는 파도를 리듬 타듯 올라타며 물살에 묻히면서도 보드에 얹드렸다. 밀려오는 푸른 등줄기에서 아찔한 속도를 즐겼다. 햇살에 번뜩이는 물빛과 어우러져 피부가 까맣게 그을리면서 꼬마는 반복해 도전하며 한 낮을 만끽했다. 파도는 대양에서 중력, 바람, 밀물과 썰물의 영향에 의해 일어나는 물결이다. 하얀 포말을 그리며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밀 당긴다. 밀려오는 힘찬 물살이 파도를 마구 일구어 낸다. 육지에 다가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뿜어내기도 한다.

서퍼(surfer)가 파동, 바람의 방향에 따라 앞을 향해 나가거나 이동한다. 널(board)을 이용하여 파도 위에 올라야 한다.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떨쳐버린 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는 손자의 모습. 긴장하는 기색이 없다. 꼬마는 일찍이 모험의 매력을 알았을까. 새로운 곳을 향하기 위해 먼저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을 자연스레 깨달았을 것이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그는 태평양 한가운데 마우이섬 Hokiokio에서 도전해본다. 정식으로 레슨을 받으며 기본자세를 연마한다. 첫 단계로 균형을 잡고 서야 하는데 양팔과 다리를 벌려야 발란스를 잡기 쉽다고 한다. 이때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고 눈은 파도를 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려면 앞으로 다가오는 상대를 직시해야 한다고 할까. 적을 알아

야 하기 때문이다. 생의 깊이에서 오는 강한 고통을 감수해야 옳고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다. 의를 행하기 위해 나아가는 세상 속으로의 도전을 통한 극복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넓은 바다는 역동적인 한 모멘트로 감정을 가진 생명체인 듯싶다. 달라지는 날씨에 의해 하늘과 바다는 한마음 되어 서로를 전한다. 찬란한 햇빛을 반사해 환희로 가득 차다가도 갑자기 어두워져 검정빛으로 분노하며 비를 쏟아내기도 한다. 마치 인생의 항해처럼. 서퍼는 이런 변화무쌍한 날씨를 뱃머리에서 부딪혀 맞아내는 것이다.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선택해 여러 상황과 마주하며 가는 것이다. 여기에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을 까. 우리 삶은 창의적인 타기(ride)를 통해 승고하고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다.

잔잔한 물결이 거센 바람에 의해 거친 파도를 몰고 온다. 높은 산 같은 물이 밀려올 때도 있다. 집채보다 더 큰 파도가 벽처럼 덮친다면 난 어찌할 것인가. 쓰나미를 다룬 영상을 보며 공포에 싸인 적이 있다. 큰 파도는 몹시 놀라게 하는 이미지나 비참한 이야기로 그려진다. 위기를 맞는 순간에 오싹한 스릴, 소름 끼치는 공포를 이겨내는 노력과 작업이 필요하다. 가장 극단적인 순간에 조물주와 의사소통해야 하는 함을 절실히 느낀다.

파도가 진짜 클 때 서퍼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고 한다. 어찌할 바 모르는 인간은 자연의 힘에 자신을 맡기고 그 품에 안길 수밖에. 태풍이 불 때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가운데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것을 태풍의 눈이



라고 한다. 중심에 가까울수록 원심력이 세어지기 때문에 중심은 조용한 기상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무풍지대와 같이 소용돌이 중심부에서 평화를 맛본다는 이율배반적인 사실을 깨닫는다. 그 순간을 찾는 자연과의 조화는 사람과 신의 관계를 의미한다. 깊은 내면을 규제하는 힘보다 강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큰 속도에 도전해보자. 밀려오는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더 힘차게 전진하여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도해보자! Let's try it!

구름 속에서 얼굴 내민 달빛이 백사장을 고요하게 비추고 있다. 북적이던 피서객이 모두 떠나가고 아이들은 엄마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파도도 숨을 고르는 시간이다. 적막 속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모래사장에 흡수되는 듯하지만 되돌아 넓은 세계로 나간다. 역사의 흐름과 진리는 그렇게 반복해 왔다.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에 맞추어 할머니는 읊조린다. 타 문화 속의 소수 민족으로서 새로이 창조된 고유하고 풍부한 숨결을 숨 쉬며 자라나거라. 파도를 올라타는 기상으로. 🍀



요놈들의 공격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다. 옛날의 모기가 아니다. 전과는 달리 크기가 작아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나지 않는다. 따끔해서 모기에 쏘인 걸 알았던 예전과는 달리 슬그머니 가려워 긁기 시작하다가 확확 달아올라서야 당한 것을 안다.

모기는 유난히 나를 따르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같이 있던 사람은 멀쩡한데 소리도 없이 다가와 나에게만 착 달라붙을 리가 없다. 내가 그리 좋으냐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만만하냐고 발끈해 봐야 좁쌀만 한 모기는 들은 체도 안 한다.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면서.

내가 사는 이곳에 모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전에는 모기 보기가 드물었다. 가끔 보이는 모기도 크고 굵떠서 눈에 잘 띄었다. 앵앵거리는 앙칼진 소리에 금방 노출되고 이내 손바닥 세례를 받고 납작 해 지고는 했다.

그랬던 것이 몇 년 전부터 나타난 모기는 하루살이만큼 작아서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몇 번 당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요 놈이 발목만 물어 '앵클 바이터'란 이름을 가진 모기라는 것을 알았다. 쏘인 자리가 그냥 가려운 게 아니라 약이 바짝바짝 나고 환장할 정도로 가려웠다.

어쩌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물리기라도 하면 벅벅 긁고 싶은 걸 참느라고 진땀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다. 스텔스기

만큼이나 빨라서 잡을 도리가 없다. 그래도 이 녀석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보일 듯 말 듯 한 흰 꼬리를 달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그것 때문에 운 사납게 딱 잡히는 날도 있었다. 놈이 만만히 보던 나에게 잡히는 날에는 전리품처럼 점 딱지 하나를 휴지에 집어 들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랬던 것이 올해 새로 선보인 모기는 흰 꼬리도 없는 신형 스텔스 기능을 장착했다. 지금까지 무수히 당했어도 그놈을 본 적이 없다. 스텔스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특수한 기술을 말한다. 핵이 있다고 큰소리 뽐뽐 치는 북한의 똥띠이도 미국의 스텔스 기능을 장착한 가오리 모양의 전투기만 뜨면 오금을 못 편다고 한다. 시커먼 밤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전투기가 북한지역에 들어가 종횡무진 설치대면, 그야말로 아얏소리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놈의 모기처럼.

그런 스텔스 모기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옛날 모기처럼 침을 쏙 찔러 넣는 것과는 달리 무슨 건지 건드리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건 스텔스기 지나가듯 스친 자리에 화끈하고 불바다가 되는 것이다. 안 그래도 디지털시대니, VR(가상현실)시대니,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모기마저 덩달아 진화해 가는 걸 보면 덜컥 겁이 날 때도 있다. 안 그래도 아날로그적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뒤쳐진 느낌을 받고 있던 때이기도 해서였다.

물린 자리에 한국 약, 미국 약 좋다는 건 다 써 봐도 소용이 없다. 낮이건 밤이건 모기가 싫어한다는 약을 바르고 다녔다. 그것도 별 소용이 닿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미용실 손님이 뜨거운 물이 약이라는 말을 했다. 그날 밤도 예외 없이 نوم에게 뜯기고 난 다음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가려운 부위에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쏘아보았다. 뜨거운 물이 닿자,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원함을 느꼈다.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야릇한 쾌감까지 느꼈다. 놀랍게도 가려움증은 거짓말같이 없어졌다. 너무 신기해서 인터넷을 열고 관련 사항을 검색해 보았다. 모기가 물 때 주입한 포름산이란 독성은 48도 이상 온도에서 30초 정도면 해독이 된다고 한다.

스텔스 모기의 공격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나는 모처럼 편히 잠들 수 있

었다. 세상을 사노라면 다 살아가는 법이 있는 모양이었다. 모기 따위에 시달리다가 이 사소한 발견 하나로 똥똥 뜨다니! 발견은 사소했지만,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 내겐.

다시 여름이다.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렸으니, 요놈들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되어 나타날지. 뜨거운 물이 이번에도 약이 되어 줄지. 은근히 맛닥뜨려 보고 싶은 초여름 밤이다. 🍀



재미수필 웹사이트 안내

English Essay

- * 웹사이트에서 English Essey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링크 >>>
- * 창작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 협회 회원에게 개인 서재를 제작해 드립니다.(개설 비용 50불)
- * 웹사이트 가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문의 바랍니다.
- * 활동을 중단한 회원은 등업에 준하여 하향 조정합니다. (예) 협회회원 >>> 일반회원



밸리방&엘에이방 (Zoom) 5월 11일 6월 10일(대면)
 온동네방 (Zoom) 4월 16일 5월 11일 6월 18일
 토렌스방 (대면) 5월 31일
 오렌지방 (Zoom) 5월 15일
 얼바인방 (Zoom) 4월 18일 5월 16일 6월 20일
 플러턴방 (Zoom) 5월 8일, 22일



그해 여름은 달랐다. 매일 오르곤 했던 바닷가 언덕에 여름은 없었다. 가을이 주는 생각이 쉬어가는 계절이 머무르고 있었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되어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동안 기울어져 가던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고 이사를 했다고 한다. 20여 년간 살던 부평동을 떠나 남천동이라는 낯선 곳을 찾아갔다. 광안리 해변이 가까운 그곳,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아버지가 지은 허름한 벽돌집과 옆에 딸린 자그마한 공장이 있었다. 지금은 부산에서 알아주는 금싸라기 땅인 부촌으로 유명하지만, 그때는 삭막한 곳이었다.

집안이 조금씩 기울어져 간다는 눈치는 채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부족함 또는 궁핍은 아직 다른 세상일 같았고, 뜨거운 여름날의 나른함 정도의 의욕이 나지 않는 나날을 보낼 뿐이었다. 아마도 내년 여름방학에는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막연한 생각은 들었다.

멀리 언덕이 보여 매일 그 경사진 언덕을 올라갔다. 소나무 몇 그루와 바위가 있는 꼭대기에 서면 눈앞엔 망망한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그 언덕에 올라가 한나절 바위 옆에 기대어 앉아 반짝이는 물결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가끔 함께 올라온 친구는 그 언덕 꼭대기에서 산 정상에 오른 양, 있는 힘껏 소리치더니 곧이어 발성 연습을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친구와 나는 그 언덕에 올라 친구는 노래 연습을, 나는 그 바다를 말없이 바라보는 일이 계속되었다.

그 무렵 친구가 연습했던 18번 노래는 '007 '위기일발' 영화 주제가 'From Russia with Love'였다. '맷 먼로우(Matt Monroe)'가 부른 그 노래는 간첩 영화 주제가답지 않게 부드럽고 낭만적이다.

지금도 기억나는 감미로운 멜로디와 아스라이 멀리서 반짝거리던 물결, 하늘과 바다의 희미한 경계선 속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고 멈추어 있는 듯했다.

그때 무슨 상념에 젖었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 그저 멍하니 보낸 시간은 따스한 햇볕을 쬐는 고양이처럼 행복했다.

그 노래 가사처럼 사랑하는 이와 함께 멀리 떠나는 꿈을 꾸었는지도...

지금은 사라져 버리고 없는 언덕과 여름날의 그 시간은 대상 없는 사랑을 향해 날아가고 싶었던 그 리움만이 머물러 있다. 🍀





뉴욕에 살았을 때 여러 해 동안
강풍을 동반한 비를 만난 기억이
자주 있었다

비바람이 휩쓸고 간 다음 날 거리
를 나서면 어김 없이 뿌리를 드러낸 채 아름
리 고목들이 땅바닥에 누워 있는 광경을 목격
하기도 하였다 그토록 우람한 나무가 길 가운
데로 쓰러져 오고 가는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
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은 여름날에 길가는
행인들의 더위와 땀을 식혀주던 그 고마움이
안타까운 탄식으로 뒤집어지는 순간이었
다. 걸모양만 거목이었던 것이다

용비어천가의 내용 중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할 세라는 내용을 증명
하듯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강한 비바람에
도 이렇게 쉽사리 뽑혀 나 뒹굴지 않을 듯하다.

거목이란 키만 큰 나무가 아니라 뿌리까지
튼튼하게 뻗어야만 한다.

거목은 항상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
수 있게 하며 시절을 쫓아 꽃을 피우고 과실을
맺게까지 한다.

그러므로 거목의 존재감은 키가 큰 나무에 있
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은 것에 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수록 P 16쪽 ➡



P 15쪽에서 연결 ➡

더 단단히 땅속으로 그 중심을 이동한다는 말이다.

단순한 이치이긴 하지만 제대로 심어진 나무는 절대로 뿌리가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 이를 비유로 말한다면 과히 허풍스럽지 않은 자존심이라고 하겠다

바닷가에서 해풍을 많이 맞고 자란 나무일수록 모진 바람에 시달렸던 흔적이 보이고 모진 세월 동안 자신의 존재감을 곳곳하게 지켜낸 내공이 느껴지는 것은 높이 오르고자 하는 욕망의 유혹을 거부한 채 내려감의 용기가 자신의 향기를 삶의 모양으로 드러낸 것이다

사람의 마음도 그가 삶에서 보여주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가진 마음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그가 가진 가치 판단의 기준 때문에 그가 머문 자리로부터 비운 자리까지도 향기로운 것은 그가 쉽게 흔들지 않는 깊이 있는 존재감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다.

작은 칭찬에도 들뜨는 마음은 갈대와 같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려는 모습을 이길 수 없을 때 자신의 얇은 뿌리가 한순간 뽑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엄마에게 도무지 내 감정을 속일 수 없다. 정확하게 무슨 일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마음 상한 일이 있었다.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시간에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딸, 오늘도 감사한 하루 보내세요” 대답해 드릴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었다. 간단하게 “네”로만 대답하고 전화기를 덮었다. 퇴근 시간쯤 되어 다시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응, 엄마” 평소시의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 안도의 숨을 쉬신다. 아침에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신다. 없었는데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나의 “네” 라는 메시지가 힘이 없었다고 하신다. 타입 되어 간 인쇄체 글씨 속에서도 딸의 감정을 읽어내는 엄마의 탁월한 예민함은 정말 놀랍다.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시면서 자식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지 못하시는 거냐고 때로는 투덜대기도 하지만, 내가 부모 되고 할머니 되어 보니까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간다.

매주 화요일은 살찌는 날이다. 화요일마다 엄마를 만나러 간다. 86세 노모를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접받으러 간다. 가자마자 홍삼차에, 꿀임없이 먹을 것을 내어놓으신다. 엄마의 반찬 솜씨는 변하지 않으신다. 이 나이 되도록 나는 김치를 담지 않고 엄마의 꿀맛 김치를 먹고 있다. 하지 마시라고 해도 자식들, 손주들 해주는 재미라고, 건강하여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신다. ➡



모든 것을 주시고도 해준 게 없다고 하시는 엄마,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당신의 희생 속에 철었던 우리는 가난하지 않았다. 나아가 우리는 엄마로 행복했다. 칠순이 가까운 딸이 지금 구순이 가까운 엄마가 건강하셔서 너무나 행복하다. 엄마가 가까이 계셔서 행복하다.

예일대학교 교수 로버트 레인(Robert E. Lane) 박사가 2000년에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조사했다. 그의 연구 결과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 가정생활 및 사회적 지지였다. 레인은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를 통틀어 동료애라고 부르고 동료애가 행복의 근원이라고 본 것이다. 늘 지지해 주시는 엄마로 인해 우리 가족은 든든한 동료애를 가진 행복 공동체였다.

나의 어린 시절은 가장인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므로 엄마와 할머니의 고생이 많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느라 우리를 충분히 돌보지 못했음이 엄마 마음은 항상 미안함으로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러나 레인의 조사가 말해주듯이 우리 가족의 동료애는 삶의 어려운 구명들을 메꾸고 지금도 서로의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행복하다. 철었던 어린 시절 엄마로 인해 행복했고 지금도 엄마로 인해 행복하다. 🍀

그런 엄마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에는 너무나 놀랐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유행하기 시작할 때는 치사율이 높아 공포스러웠다. 설사하시고 이런저런 증상이 코로나 같아 검사해 보니 코로나였다. 많이 아프신데 우리들한테 옮길까 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들어서지도 못하게 하였다. 식사를 못하여서 죽을 끓여 갔는데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라고 하신다. 식구들과도 격리해 놓는, 아픈 사람 간호도 해드릴 수 없는 전염병은 정말 무섭다. 증상이 심해지자, 의사인 조카가 밤에 응급실로 모시고 갔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 격리 생활을 하시면서 잘 이겨내셨다.

< '봄나들이' 행시 >

<장원> 김카니

봄이 시작되면 생각난다
나와 친구들이 한마음으로
들에 편 야생화를 찾아
이리저리로 뛰어다니던 그곳!

<차하> 김석연

봄바람이 솔솔 부니
나비들이 날아든다
들녘엔 새싹들이 돋아나니
이처럼 아름다울꼬!

<차하> 김수영

봄봄 봄이 왔네
나비가 훨훨 꽃을 찾아 춤추네
들과 산에 봄꽃이 만발했네
이 몸도 봄기운에 취해 더덩실 춤을 추네

<차하> 이희숙

봄바람이 속삭인다
나만을 쳐다봐 달라고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는
이 마음은 무얼까?



- 협회 웹사이트 -
행사앨범 게시판



< 재미수필문학상 >	#18 최미자	#35 유영주	#52 한 영
#03 제4회 유숙자	#19 김혜자	#36 노영매	#53 김카니
#04 제6회 공순해	#20 권조앤	#37 곽남인	#54 신혜원
#05 제7회 조만연	#21 박진희	#38 출판기념회·시상식	#55 퓨전수필 봄호
#06 제8회 이현숙	#22 김수영	#39 전월화	#56 최미자
< 회원 >	#23 정조앤	#40 아듀! 2021~2022	#57 권조앤
#07 백인호	#24 신순희	#41 유숙자	#58 김영교
#08 조옥동	#25 신혜원	#42 공순해	#59 김정숙
#09 김영교	#26 이정호	#43 퓨전수필 겨울호	#60 이정호
#10 김석연	#27 배헬레나	#44 양상훈	#61 박진희
#11 정찬열	#28 이희숙	#45 이리나	#62 이명숙
#12 박유니스	#29 퓨전수필 가을호	#46 이해숙	#63 정유환
#13 성민희	#30 이원택	#47 백인호	#64 이진용
#14 한 영	#31 우연실	#48 김수영	#65 이현인
#15 퓨전수필 여름호	#32 최숙희	#49 김석연	#66 우연실
#16 박신아	#33 임지나	#50 박유니스	
#17 김카니	#34 조모세스	#51 김혜자	

2023년 회비납부 현황 (1월 ~ 6월 30일)

- * 연회비 / 김원 이진용 이현인 김정숙 한남옥 정유환 이명숙 유영주 임선주 김탁제 양상훈 박종진 곽남인 김혜자 최미자 이종운 김홍기 공순해 조옥동 노영매 이해숙 신순희 김민정 우연실
- * 이사회비 / 유숙자 김카니 이현숙 한영 박유니스 이리나 이희숙 신혜원 최근자 배헬레나 정조앤 조성환 김석연 권조앤 백인호 조만연 박진희 성민희 이정호
- * 출판비 / 이진용 이리나 김정숙 한남옥 이명숙 유영주 박종진 김석연 곽남인 유숙자 최미자 이종운 김홍기 공순해 박진희 노영매 성민희 정조앤 김카니 이해숙 배헬레나 이정호 정유환 신순희 이현숙 이희숙 김민정 우연실 권조앤 양상훈
- * 협회 후원금 / 김카니 이현숙 이리나 최근자 정조앤 김탁제 최미자 김홍기 박진희
- * 서재개설 / 이진용 이현인 김정숙 한남옥 이명숙 정유환
- * 24집 재미수필 판매 / 이진용
- * 본협회는 여러분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2023년 회비 / 연회비 \$120 / 이사회비 \$200 / 출판비 \$150 / 서재 개설비 \$50 / 찬조금
- * 회비 납부처 / Pay to the Order: KEAA
정조앤 JOANNE CHUNG 주소 / 22702 FONTHILL AVE., TORRANCE, CA 90505
- * 문의 / jaemisupil2021@gmail.com

가

족

여

행

참여 / 온동네방 & 토크스방

김혜자

가슴 두근두근 꽃가마 탄 새색시
족두리 쓰고 새신랑 만나러 가네
여린 가슴 눈물로 당부하신
행복의 꽃은 인내라는 어머니 말씀

김수영

가을이 오면
족두리 쓰고 시집가는 순이
여생을 행복하게 살면 좋겠네
행복은 바로 그대 발 앞에 있다고

신순희

가회동 안방마님이
족두리만두 손수 빚으며
여린 손녀에게 본 보이니
행랑어멈 안절부절 못하네

박진희

가깝지 않은 곳, 맞는 신발 신고
족저근막염 걸릴 걱정없이
여유있고 폭신평신했
행보로 목표를 향해 나가기로!

정유환

가문이 이리 좋은지 몰랐습니다
족보를 펼치는데 한나절이 걸리데에
여출일구 한결같은 고고한 가문이
행여나 내게 가당키나 할깁니까

곽남인

가정의 달 오월은
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여유로움과 감사를 나누는
행복하고 따스한 계절이다

박중진

가까스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족히 반나절이나 걸린 긴 의논 끝에
여윳돈, 쌈짓돈, 비상금 모두 털어내
행복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양상훈

가족모임 오랜만에 별식을 찾던 중
족발집의 원조 장충동 평안도족발집
여염집 아낙네들이 모여 쏟아낸 수다
행동마다 정겨운 모습 동치미를 곁들었네

공순애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이나 물으신다면
족쇄처럼 끌고 다녀야 하는 짐 덩어리들
여유히게 이마를 들어 산머리를 바라보면
행복이 가물가물 손에 잡힐까요?

김영국

가진 것이 많지 않고 풍족함이 없어도
족한 줄로 여기는 삶이 기쁨인 것은
여유로운 마음을 누릴 수 있어서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김카니

가끔 생각이 난다
족발에 홍어회 갓김치 삼합을 먹은 후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행복해했던 가족여행이 ...

정조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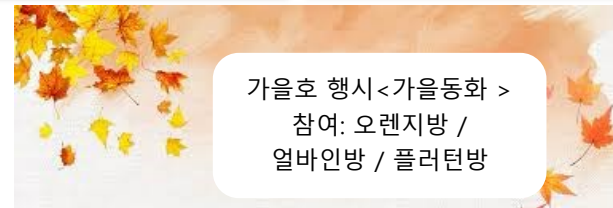
가자! 동네 공원으로~
족구하기에 딱 좋은 곳이야
여럿이 뛰며 놀다 보니
행복한 앤돌핀이 솟구쳐 오르네

이혜숙

가족이 둘러앉아
족발을 먹으며
여가를 즐기는 이 순간이
행복이 아니겠는가

김영교

가을바람 부는 겨울 초입
족제비도 움찔
여기저기 숨겨놓은 식량
행방 몰라 올겨울을 어쩔까?



가을호 행시 <가을동화 >

참여: 오렌지방 /
얼바인방 / 플러턴방

협회 소식 및 회원 동정

- * 7월 수필 강의 (Zoom) 일시: 7월 23일 오후 5시
강사: 한영 수필가
- * 제10회 재미수필문학상 및 제18회 신인상 공모 마감
- * 2023년 재미수필 25집 원고 마감
- * 김수영 수필가 영작 수필집 출간
<A Beacon of Hope_ Dr. Frank W. Schofield>
- * 신혜원 수필가 출판기념회 일시: 6월 24일 오전 11시
장소: 주향교회 친교실 3412 W 4th St., LA, CA 90020
- * 김혜자 회원 어머님 소천
- * '봄나들이' 행사 일시 4월 15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Ralph Clark Regional Park

타 문인협회 소식

- * 미주문협 연규호박사 특강 6월 16일(금) 오후 4시
- * 미주문협 '디카시와 서각' 전시회
일시: 5월 26일~28일 장소: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몰
- * 재미시인협회 <시인교실> 현대시 강좌
강사: 송기한 교수 일시: 5월 20일 저녁 7시
- * 미주문협 (Zoom) 강의 주제: 시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
강사: 나희덕 시인 일시: 5월 19일(금) 오후 6시
- * 미주문협&재미시협 합동 봄소풍 일시: 4월 22일(토)
장소: Castaic Lake

편집 후기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캘리포니아 최북단에 위치한 국립공원, 라센 화산국립공원 캠핑장에서 여러 날을 있었다. 그곳은 '캘리포니아의 옐로스톤'으로 불리는 곳이다. 태곳적의 신비한 자연에 매료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니 편집 일이 밀려 있었다. 이제 여름호를 마감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빈다. <조앤>

창간호 발행 1999년

계간 퓨전수필 2023년
여름호 <7월~9월>
통권 제82호
발행일 2023년 7월 10일
발행처 재미수필문학가협회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4946 East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2
U.S.A.

YouTube 재미수필
Website jaemisupil.com
jaemisupil2021@gmail.com

발행인 이현숙
sook1961@hotmail.com
편집인 정조앤
jchung315@yahoo.com
이리나
llee439@yahoo.com

모처럼 협회에서 주관하는 봄나들이로 모였습니다. 많은 분이 참석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튜브가 66회를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고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여름 보내십시오. <리나>